

AUTHOR 노영상

TITLE 깔뱅 신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론' 사이의 관계

IN 장신논단

vol.22 (2004): 191-215

높게 평가했다. 만약 구약성경의 성례전들이 장차 올 구세주를 의미했다면, 이것은 장차오실 그 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에 의해서 성취될 구원을 구약의 성례전으로 하여금 참으로 수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치는 주장했다.<sup>39)</sup> 그러나 부치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적 거리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신학적 발전도 파악하고 있다.

부치의 성경해석의 탁월한 점은 인문주의적 방법과 히브리적·랍비적 방법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결정적인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해석학(聖解釋學)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부치는 구속사적 큰 틀 속에서 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성령론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칼뱅 신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론' 사이의 관계

노영상(기독교와 문화 부교수)

### I. 칼뱅 신학의 중심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와 연합' (the union with Christ)

#### A. 칼뱅 신학을 지배하는 신학적인 관점들

칼뱅 신학을 지배하는 신학적인 관점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 신론 지향적으로 그의 신학 전체를 전망하기도 하며, 기독교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조망하기도 한다.<sup>1)</sup>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 및 '오직 주께 영광'(Soli deo gloria)을 그의 신학의 핵심 주제로 보는 경우는 신론 중심적 고찰이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룸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의 신학을 풀기도 한다. 칼뱅의 신학을 분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분리(separation)되지 않지만, 동시에 구별(difference)되는 것이라고 니젤(Wilhelm Niesel)은 그의 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도 않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sup>2)</sup> 성례전적 양식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행동, 말씀과 성령, 성령을 통한 개인적 소명과 교회를 통

39) D. F. Wright (ed.), *Common Places of Martin Bucer*(Appleford, England: Sutton Courtenay Press, 1972), p. 293.

1) 존 H. 리스, 『칼뱅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6 쪽 이하.

2)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본질 혼합에 대한 것이다.

한 공적인 소명 등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이런 신중심적인 관점과 기독교 중심적인 관점을 종합하는 입장도 있는 바, 이른 바 삼위일체 중심적인 입장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그러하다는 견해이다. 또한 갈방은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바, 그런 해석 속에선 신론 중심적 전망과 기독교 중심적 전망이 연결되는 것이다.

### B. '그리스도와 연합'이 갈방 신학의 중심개념이다.

이러한 견해들과는 다르게, 갈방 신학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과 '성화'(sanctification)가 그의 전 신학구조 및 구원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sup>4)</sup> 텀블레로(Dennis E. Tamburello)는 그의 책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갖는 말들을 갈방의 『기독교강요』에서 골라 그 책의 부록에 실고 있다. 접붙임(engrafting), 연합(communion), 교제(fellowship), 성령 안에서(in the Spirit), 영적 결혼(spiritual marriage), 영적 연합(spiritual union),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 하나 됨(becoming one), 하나님과의 연합(union with God), 양자됨(adoption), 중생(regeneration), 그리스도에 참여자(partakers of Christ) 등이다.<sup>5)</sup> 더브리스(Dawn DeVries)는 실로 갈방의 전 구원론이 이 같은 용어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에 근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은 말씀에 의해 효력

3) 빌헬름 니켈, 『갈방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43 쪽 이하.

4) David L. Stubbs, "Sanctification as Participation in Christ: Working through the Pauline and Kantian Legacies in Karl Barth's Theology of Sanctification" (UMI Number: 3030245, Ph. D. Dissertation in Department of Religion, Duke University, 2001), p. 13.

5)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pp. 111-113.

을 갖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사역을 통해 믿음에 의해 포착되어지는 것이다.<sup>6)</sup> 신학자 콜프하우스(Wilhelm Kolffhaus) 또한 칭의, 성화, 신앙, 도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서의 신비적 연합의 빛에 의해 조망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7)</sup> 갈방의 전 신학적 구조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조망된다는 것이다(III.1.1).<sup>8)</sup>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신앙론, 기독교인의 영성 이해, 성례론을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 및 그리스도 안에 참된 참여(a true participation in Christ)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III.1.1/ IV.17.11).<sup>9)</sup> 중생, 소명, 회심, 회개, 칭의, 성화가 성령의 현실성에 관련되어 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진다(III.11.2/ III.11.10). 신앙도 지적인 시인(acknowledgment)만이 아닌 것으로, 연합이라는 경험적 측면 갖는다(III.11.7). 밀너(Benjamin C. Milner, Jr.)는 이르기를 신앙과 칭의가 갈방의 『기독교강요』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행동보다 순서상으로 뒤에 오는 것은,<sup>10)</sup> 이러한 성령으로

6) Dawn DeVries, "The Incarnation and the Sacramental Word: Calvin's and Schleiermacher's Sermon on Luke 2," in *Towards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Tasks, Topics and Traditions*, ed. David Willis and Michael Welker (Grand Rapids: Eedrmans, 1999), p. 403.

7) Wilhelm Kolf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ivin*, *Beitrage zur Geschichte und Lehre der Reformierten Kirch*, vol. 3 (Neukirchen: Buchhandlung d. Erziehungsvereins, 1938), p. 80. 콜프하우스의 이 책은 갈방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를 검토한, 가장 중요한 고전적 책 중의 하나이다.

8) 갈방의 기독교강요를 인용하기 위해 세 가지의 책을 사용하였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2, 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와 장 갈방, 『기독교강요』(상)(중)(하),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3) 및 『기독교강요』(상)(중)(하), 김중흠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이다. 필자는 본 글에서 『기독교강요』를 인용하면서, 위 세 가지 책 중 좋은 번역을 사용하였는바, 그것의 인용내용을 본문 내에서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본문 중의 III.3.9는 『기독교강요』 제 III권, 2장, 22절을 의미한다.

9) 정승훈, 『종교개혁과 갈방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68 쪽.

10) 갈방은 그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구원의 순서(ordō salutis)를, "예정(선택)-유효한 부르심(소명: 성령의 조명과 말씀 선포)-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믿음과 중생(성화)-회개(죽임과 살림)-기독교적 삶(의 스타일): 자기부정, 십자가를 짊, 내세에 대한 묵상-칭의와 성화-(양자됨)-영화"의 순으로 말하고 있다.

의 하나 됨이 구원의 기초를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과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한 양상인 것이다. 갈뻡은 신앙이 성령의 주된 사역임을 언급한다(III.1.4). 또한 우리는 그의 몸이 참여함을 통하여 이중은혜(a double grace), 곧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된다(III.11.1). 갈뻡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으면 성화도 없다고 가르친다(III.14.4). 그는 또한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는 것임을 언급한다.<sup>11)</sup> 갈뻡은 예정론도 기독교론과 성령론을 근거하여 해석한다. 그는 예정론을 신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I.15.8). 그는 예정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이다(III.22.3). 시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음을 갈뻡은 말한다(III.22.3).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구원의 예정은 확실한 것이 된다. 본 논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갈뻡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임을 보이는 것에 있으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개념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갈뻡의 관점에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로서의 기독교윤리상의 논점들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 II. 하나님과의 직접적 하나 됨이 아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

### A. 갈뻡이 언급하는 바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과 신비주의(mysticism)

루터의 칭의론은 단순히 외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법적적 또는 수동적인 의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루터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란 개념을 통해 칭의론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화(theosis, deification)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

11) Benjamin C.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p. 168.

는 루터의 이러한 입장을 그의 용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적 연합,' '황홀경,' '신비적 그리스도' 등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루터는 가톨릭의 공적주의와 함께 하나님과의 본질혼합(a mixture of substances)을 강조하는 열광주의 양자를 다 반대하였다.<sup>12)</sup>

이에 있어 루터와는 달리 갈뻡은 신비주의와 관계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갈뻡은 신비주의의 입장을 갖는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의 신학과 오시안더(Osiander)의 신학을 신랄히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I.14.4/ III.11). 갈뻡은 신비주의의 존재론적 측면 특히 하나님 안으로의 존재론적 몰입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한다.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대에서는, 신비주의나 성경의 기적 등을 이성애 반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갈뻡의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개념은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sup>13)</sup> 그리하여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대한 갈뻡의 입장은 복합적이다. 그는 특히 클라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의 신비주의에 대한 친화력을 보여준다.<sup>14)</sup> 또한 플라톤적 신비주의에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sup>15)</sup> 갈뻡은 그의 생애 중 신비주의의 입장에 있는 '공동생활형제단'과 깊은 관계를 맺었음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갈뻡의 『기독교강요』 제3권에서 우리는 근대적 경건 및 중세 신비주의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갈뻡은 특히 클라보의 베르나르와 장 제르송(Jean Gerson) 신비주의<sup>16)</sup>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갈뻡은 일면 신비

12) 정승훈, 『종교개혁과 갈뻡의 영성』 28-29 쪽.

13) David L. Stubbs, "Sanctification as Participation in Christ: Working through the Pauline and Kantian Legacies in Karl Barth's Theology of Sanctification" (UMI Number: 3030245, Ph. D. Dissertation in Department of Religion, Duke University, 2001), p. 21.

14) 텀블레로(Dennis E. Tamburello)의 책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은 갈뻡의 신학이 베르나르의 신비주의와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차이점도 가진다는 것을 언급한다.

15) 정승훈, 『종교개혁과 갈뻡의 영성』 29 쪽.

16) 장 제르송은 16세기 프랑스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관상의 산』(*The Mountain of Contemplation*)이란 책을 저술한 바 있었다.

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신비주의 내에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 됨이란 영성적 차원에 관심을 가졌음이 파악된다.

### B. 신비주의의 범신론적 위험성 경계

스미디즈(Lewis Smedes)는 갈뱅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신비적인 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의 인격적 만남(a personal encounter in faith)으로 해석한다.<sup>17)</sup> 신앙이란 연합의 경험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개방성(a personal openness)이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순종의 행위를 수반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하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행위인 것이다.<sup>18)</sup> 스미디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나의 행동으로 해석하지 일종의 존재적인 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있어 파커(Tomas Henry Louis Parker)는 신앙을 행동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종의 시인으로 생각하였다. 행동으로 보게 되면, 그 행동이 하나의 공적으로 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커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직접적인 것으로 보기 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신앙을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에 대한 시인(acknowledgment)으로 생각하였다.

아무튼 스미디즈와 파커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본질적인 연합으로 보기보다는, 거리를 둔 간접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였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에 의한 칭의이지, 가톨릭과 같은 본질혼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둘은 모두 범신론(pantheism)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스미디즈와 파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재 내에 내재하는 신을 말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슐라이에르마허(F. Schleiermacher)를 위시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나치게 하나님

17) Lewis Smedes, *Union with Christ: A Biblical View of the New Life in Jesus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83), pp. 156-157.

18) David L. Stubbs, "Sanctification as Participation in Christ: Working through the Pauline and Kantian Legacies in Karl Barth's Theology of Sanctification" (UMI Number: 3030245, Ph. D. Dissertation in Department of Religion, Duke University, 2001), pp. 24-25.

을 내재화한 나머지, 범신론의 위험을 갖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성과 교회의 정체성(identity)에 손상을 주게 하였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 속의 실제로 파악함으로써, 일종의 범신론(pantheism)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sup>19)</sup>

### C. 신비주의가 말하는 바의 직접적 하나 됨이 아닌, 성령을 통한 하나 됨

워필드(Benjamin Warfield)는 갈뱅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였다.<sup>20)</sup> 성경의 기자들에 영감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며, 성경의 독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다. 우리는 성령의 작용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 작용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III.1.1).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 없인 그리스도가 우리밖에 머무른다(III.1.1). 갈뱅은 성령을 하나님의 존재의 역동성을 매개하는 영이라고 정의한다(III.13.19).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뿐 아니라 그 분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IV.17.10). 성령의 능력과 효율성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pro nobis) 사건'을 '우리 안에(in nobis) 거하는 사건'이 되게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실제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맺어 주는 끈이다(III.1.1).<sup>21)</sup>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의인과 성화의 은혜의 삶을 수여한다. 우리의 외부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Christ extra nos)(III.1.1)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성령을 통해 그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 유익함을 나누게 되며,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화한다.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는 성령을 얻을 수 없으며, 성령 없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

19) David L. Stubbs, *op. cit.*, pp. 28ff.

20) 이양호, 『갈뱅의 생애와 신학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49-50 쪽.

21) 성령은 나누인 것을 재결합하는 사랑의 끈(viculum cartatis)이다.

다.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디에서도 성령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연합, 곧 참여(participation)가 갈뱅의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그간 잘 인정되지 않았었다. 신학자 리츨(Albrecht Ritschl)은 신비주의와 종교개혁의 창이론이 양립할 수 없다고 하였었다. 이 같은 리츨의 견해와는 다르게, 텀블레로(Dennis E. Tamburello)는 그의 책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에서 클라보의 베르나르와 갈뱅을 '신비적 연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종래의 갈뱅과 신비주의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논박한다.<sup>23)</sup> 그는 갈뱅의 입장을 광의의 신비주의 속에 포함시킨다. 협의의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반면, 광의의 신비주의는 성령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비주의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24)</sup> 신비주의는 궁극적인 존재와의 직접적 합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뱅이 말하는 바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머리와 지체의 결합이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합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체험적이며 신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갈뱅은 이러한 연합을 하나님과 인간 본질(substance)의 존재론적 혼합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경건한 인간 본질의 신적 존재로의 몰입 내지 합일이라는 중세 신비주의와 갈뱅의 신학은 같지 않다.<sup>25)</sup> 성령을 통한 합일이, 직접적인 합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갈뱅의 신비주의는 개인의 체험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동시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교회론적이며, 성례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 조상우, 『갈뱅의 그리스도와 연합 관점에서 본 성찬』(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신학대학원, 1998), 15 쪽.

23) 정승훈, 『종교개혁과 갈뱅의 영성』 19 쪽.;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24) 정승훈, 『종교개혁과 갈뱅의 영성』 25 쪽.

25) 갈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신비주의와 상이함에 대한 설명은 D. Wilhelm Kofhaus의 책,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Buchhandlung des Erziehungsvereins Neukirchen Kreis Moers, 1939), pp. 125ff. 8장 Christusgemeinschaft, nicht Christumystik를 참조하시오.

### III.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sup>26)</sup>이 나타내는 신학적 특성

#### A.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성령을 통한 연합

갈뱅은 성화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령에 의해 대리적으로 성화된다. 그의 인성은 신성의 충분한 거처가 되어, 우리의 구원에 유용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리가 된다. 성령에 의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하게 된다. 그의 인성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인성에 있는 유용한 모든 은사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각 신자뿐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바, 성례라는 유형적이며 가시적인 방편을 통해, 교회의 생활 속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있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 연합은 우리의 정의와 성화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인바, 성령은 우리를 천상으로 끌어올려 그와 연합되게 하신다. 갈뱅은 이 경우 성령이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끌어내리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계신 것으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편재한다는 루터의 사상에 갈뱅은 동조하지 않는다(II.16.14).<sup>27)</sup>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하는 고리 같은 구실을 하는 것임과 동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은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갈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함으로써, 그 인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제하게 되며, 이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26) III, 11.10.

27)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육체가 세상에 편재(omnipresence)하심을 말한다. 그러나 갈뱅은 그러한 루터의 입장이 승천 후,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에 계신다는 성경의 입장에 모순된다고 한다. 또한 이런 편재 사상은 범신론(pantheism)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어 갈뱅은 루터의 편재론을 반대하는 것이다.

가 가능하게 됨을 언급한다.<sup>28)</sup>

그러나 그 하나 됨은 본질혼합으로서의 하나 됨이 아니다. 인간의 인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도, 그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을 통해서도 인간과 신적인 그리스도가 혼동(confusion)되지 않으며, 나뉠의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초월한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 인간에 내재함과 동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그 초월성을 유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칼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매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을 통한 연합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직접적 연합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칼뱅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를 둬으로써, 신이 인간 속에 내재함과 동시 거리를 두고 초월하여 있음을 말하였던 것이다.<sup>29)</sup>

28) 로날드 S. 윌레스, 『칼뱅의 기독교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31-44 쪽.

29) 초월주의자의 신학과 내재주의자 신학의 통합(David L. Stubbs, *op. cit.*, pp. 80ff. 참조, 2001년 듀크대학(Duk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태브스(David L. Stubbs)는 바르트 신학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 혹은 '그리스도에 참여(participatio christi)'한다는 모티브가 바르트의 인식론과 구원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보수주의의 초월주의자 신학	자유주의의 내재주의자 신학
1915-20 사이의 바르트의 신학	슐라이에르마허(F. Schleiermacher)
위로부터의 접근. 계시 강조	아래로부터의 접근
인간 밖에 계신 하나님: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와 대비함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강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강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 됨을 강조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도르트 회의의 TULIP 교리와 연결)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약화됨이 문제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무시. 기독교가 도덕주의화 할 우려가 있다.
창의 강조	성화 강조
전가된 의(의인, imputatiom of righteousness))	주입된 의(의화, infusion of righteousness), 가톨릭 신학
속성교류	본질교류
지적 승인으로서의 신앙	체험적이며 실천적 신앙의 강조
객관적이며 법정적 구원	주관적이며 체험적 구원

### B.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속성교류와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음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화(theosis)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고대교회사에서 신화이론으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레네우스의 총괄갱신(recapitulation) 이론, 카파도기아의 교부들 신적인 삶에 참여 및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등의 개념들이 이것을 나타낸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말한다. 닛사의 그레고리 등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성령을 통한 신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것은 영 그리스도론 및 성령론 중심의 동방교회의 구원론과 무관하지 않다. 루터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속성교류를 강조하였다. 루터는 계속적 은혜(gratia)와 함께,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서의 은사(donum)를 강조하였다.<sup>30)</sup> 물론 루터는 신화의 가능성은 인간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였다. 성화의 삶이 종말론적 유보와 성령론적 주도권에서 일탈될 때, 그것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

현실참여 약화. 인간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현존	현실은 긍정되나, 현실비판의 기능은 약화됨
anhypostasis(against the person) 가현설적인 경향으로 가기 쉽다.	enhypostasis(into the person)
바르트 성화론에서 anhypostatic-enhypostatic 그리스도에 참여(participation in Christ) 강조(바르트의 1936년 이후의 신학).	
칼뱅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the mystical communion with Christ)의 개념으로 양자를 결합함	
웨슬리는 선행은혜(prevenient grace)와 성화의 강조를 통해 양자를 결합함	
몰트만은 그의 신학에서 성령론(pneumatology)에 대한 강조를 통해 위의 사상들을 결합함(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나, 동시 우리를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칼뱅의 신학을 일방적인 초월과 칭의만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루터와 칼뱅은 당대의 신비주의적 사상들의 문제를 파악하며, 그 사상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전개해나간 것이다. 그것은 웨슬리의 경우에서도 그렇다. <sup>1)</sup>	

30)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뱅의 영성』 120 쪽.

지게 된다.<sup>31)</sup>

칼뱅은 기독교론에서 속성교류(communicatio idiomatum, communication of properties)<sup>32)</sup>를 인정한다(II.14.1/ IV.17.30). 또한 그는 그리스도와 인류 사이에 이루어지는 속성교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교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의 본질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의 속성을 나누어주는 속성교류의 측면을 칼뱅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강조했다(II.12.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속성이 교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인류와 그리스도(의 인성) 사이에도 이런 속성교류가 일어나 연합하게 됨을 칼뱅은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성교류를 통해 양자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는 것은 아니다.

### C.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의미하는 바

그러면 과연 성령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천상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인가? 칼뱅은 결국 이런 문제를 설명하며, 그것은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음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와 거리(distance)를 유지하면서도, 그와 하나 된다는 이런 연합은 하나의 신비(mystery)라는 것이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 신비를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간구하였는바, 그것이 선행 은혜(prevenient grace)이다.<sup>33)</sup> 웨슬리는 선행은혜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 있었다. 그들의 문제

31) 정승훈, 위의 책, 70 쪽.

32) 속성교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의 본성으로 있는 것을 말한다. 두 본성이 한 인격에 귀속되어 있지만, 그 두 본성이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는 것은 아니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9), p. 324.

33) 웨슬리는 선행은혜를 통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가톨릭이 말하는 바의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갖는 인간의 위치에서 게 된다고 언급한다. 이 선행은혜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은혜인 것이다. 선행은혜를 받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믿음을 갖게 하는 칭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결 방식이 어떠하였던 간에, 그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같았으나, 그들의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은 같지 않았다. 이에 있어 필자는 하나의 완결된 설명을 통해,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웨슬리의 의견보다, 그것을 일종의 신비로 남겨둔 채, 설명을 유보하는 칼뱅의 입장에 더 호감이 간다. 웨슬리의 입장은, 신학적인 난제를 합리적 방법으로 과도하게 해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 3권 제 11장 5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비밀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의 ‘비밀스런’ 힘에 의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 D.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례전의 문제

칼뱅은 본질혼합을 말하는 가톨릭과 오시안더에 반대함과 동시에(III.11.5-6), 성례전에 있어 신적인 은혜의 실재를 분리하려는 세르베투스(Servetus)와 재침례파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성만찬 교리에 있어서의 쾰링의 기념설처럼 칼뱅은 신앙과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결코 부정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임제만의 강조는 본질혼합의 위험이 있으며, 영적 임제만의 강조는 칭의 중심의 신학이 되어 성화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제는 단순한 영적 임제(spiritual presence)가 아니며, 실제적 임제(real presence)여야 한다고 하였다(IV.17.29).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만찬 시 육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이 칼뱅은 오늘의 세상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오늘의 세상성에만 안주하지는 않는다. 그는 종말적 완성을 기다리며,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다. 칼뱅은 성례론에서 영적 임제로서의 기념설과 육으로서의 실제적 임제 사이의 통전성을 유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 E. 의의 주입(justitia infusa)과 의의 인정(justitia imputatio)의



## 문제

갈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을 매개로 한 연합을 강조하였다. 오시안더(Andreas Osiander)의 신비주의와 같은, 본질혼합(mixture)이 아니라 연합(union)이라는 것이다(III.11.5). 그것은 의화나 본질적 의(essential righteousness)의 획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시안더는 십자가와 성육신을 무시한 일종의 가현설적인 하나됨을 주장하였다.<sup>34)</sup>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나, 분리(separation)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은혜로서의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III.11.6).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현실이요, 그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구별(difference)되어야 한다(III.16.1). 오시안더와 같이 두 은혜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갈뱅은 칭의 이상의 어떤 것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의 신성에 대한 연합임과 동시에 그의 인성에 대한 연합이기도 하다. 그의 성육신과 고난에 대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은 오시안더가 주장하는 주입된 본질(essentia infusa)과는 다르다. 오시안더의 주장은 일종의 의화사상이다. 오히려 갈뱅은 성령의 사역에 근거한 영적 연합을 강조한다(III.11.5). 갈뱅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면서, 의가 주입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에 참여(impartation)하고 있는 신자의 위치를 말한 것이다. 갈뱅은 스콜라 신학자들의 은혜 주입설을 반대하였다. 갈뱅은 의의 주입(justitia infusa)과 의의 인정(justitia imputatio)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는 오시안더의 주장과 같은 의의 주입으로서의 본질혼합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의로 인정함만을 받을 뿐이지, 그의 삶에서의 실제적 성화를 거부하는 칭의 일원론에도 반대하였던 것이다.

## F. 그리스도와 연합에 입각한 칭의와 성화의 문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성령으로 연합'에서 성령을 강조하면,

34) F.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by P. Mairet (Durham: The Labyrinth Press, 1963), pp. 235-236.

성화가 제한된다. 그러나 연합을 강조하면 의인보다는 의화가 강조된다. 이에 칭의에 기반하면서도, 보다 적극적 성화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는 양자 사이의 긴장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본질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다. 성화를 칭의로 해소시킬 때 우리는 칭의 일원론에 빠질 우려가 있는바, 신비주의, 열광주의, 타계주의, 값싼 은혜, 신앙지상주의 은혜론, 폐쇄적 교회관에 따른 윤리의 부재, 선행의 약화 등을 모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칭의에 비해 성화만을 강조하거나 칭의를 성화 안에서 해소시키는 성화 일원론은 율법주의, 공적주의, 무분별한 행동주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약화 등의 위험이 있다.<sup>35)</sup> 감리교 신학에선 갈뱅과 웨슬리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루터와 갈뱅의 개신교신학은 의인(imputation of righteousness, justitia imputatio)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가톨릭의 신학은 의화(infusion of righteousness, justitia infusa)를 강조하는 신학이라는 것이다. 루터와 갈뱅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의로운 본질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고 의로워졌으나 죄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가톨릭의 사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엔 의로운 본질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개신교의 사상은 구원 후에도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여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톨릭은 구원 후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루터와 갈뱅은 수동적인 은혜론을 말하는 반면, 가톨릭은 적극적인 은혜론을 언급한다. 이에 있어 웨슬리는 의인의 사상에 기초하여 의화의 사상을 연결하고 있으며, 전가된 성화(imputed sanctification)사상에서 출발하여 참여된 성화(imparted sanctification)사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된다.<sup>36)</sup> 그러나 갈뱅에 대한 이와 같은 감리교의 평가는 갈뱅 신학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갈뱅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갈뱅은

35) 박동일, "칼 바르트의 화해론에 나타난 의인과 성화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 대학원, 1983), 3-4 쪽.

36) 김홍기, "존 웨슬리에 의해 완성된 종교개혁 구원론," 『신학과 세계』 제 28호 (1994), 92 쪽. 참여(impartation)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본질교류는 아니지만, 그와 속성적으로 교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의 성화론에서 강조함으로써, 그의 성화론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능동적 위치를 강조하였음을 오늘의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 G.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성화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적 책임사이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원과 성화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보면, 인간의 자유적 책임이 약화되고, 인간의 책임적 측면을 강화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약화된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 신학자들은 나름의 방안을 간구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웨슬리는 선행은혜로, 몰트만은 성령론에 집중함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칼뱅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와 연합함으로 그의 은혜에 의해 성화를 이루어나감과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화의 주체가 됨을 말하고 있다(III.6.2). 웨슬리는 선행은혜에 의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을 갖게 됨을 언급한다. 그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은혜이며,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있어 칼뱅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하는 성화의 주체가 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 IV.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조망된 성도의 선행

칼뱅은 성화(sanctification)를 종종 회개와 중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는바(III.14.19), 그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시고, 그 죄책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시며, 참된 순결에게 이끌리는 모든 성향을 회복시켜 가시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평생토록 회개를 실천하며, 또한 이러한 싸움이 죽음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될 것을 아는 것이다”(III.3.9). “성령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 넣으사 그의 거룩하심 속에서 폭 짚어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갖도록 하셔서 전적으로 새로워진 상태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III.3.8). 성화는 크게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로 구분된다. 개인적 마음의 부패가 제거되고 새롭게 되어 그들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개인적인 성화는 일종의 윤리적 측면의 변화를 수반한다. 동시에 기독교의 성화는 사회적인 성화를 병행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뿐 아니며, 인간의 거주하는 삶의 환경으로서의 사회와 자연만물의 변화가 성화에 포함된다. 필자는 다음 두 장에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서술하려 한다.

칼뱅에게 있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칼뱅은 믿음을 가리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고 하였다(III.2.7).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며, 마음의 지식 곧 실천의 지식이다. 신앙은 실천과 분리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죄의 용서는, 윤리적 차원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삶의 변화 및 이 세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칼뱅의 윤리의 세 구성요소인 선과 덕과 법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칼뱅은 선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지복의 삶(the beatific life) 영적인 것임을 말하였다. 먼저 참된 행복은 세상적이며 감각적인 것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세상적 부요, 권력, 명예 등은 다 헛된 것이다. 행복된 삶은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서 성취된다. 오늘의 삶은 순례적 삶이다. 인간은 그들의 최고선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취하게 된다.<sup>37)</sup>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된다.<sup>38)</sup> 이에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37) 존 H. 리스, 『칼뱅의 삶의 신학』 47 쪽.

38)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eardus Reuss, ed., *Corpus Reformatorum* (Brunswick: C. A. Schwetschke et Filium, 1863-1897),

응답은 우리의 개인적 삶의 영역 및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한다.<sup>39)</sup> 이 지복의 삶을 어떻게 알고 가질 수 있는가? 이 지복의 삶은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은 타락 후 심각히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지복의 삶의 획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다운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덕의 문제 곧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준비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갈렙은 이르기, 인간의 선행이 마음의 생생한 근원에서 연원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함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0)</sup>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화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마음도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어떤 행함도 선이 아니다.<sup>41)</sup> 인간이 변해야 선행이 나온다. 그는 인간의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정(선택)-유효한 부르심(소명)-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믿음-중생(성화)-회개(죽임과 살림)-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자기부정, 십자가를 짊, 내세에 대한 묵상)-칭의-선행(성화)-견인-영화이다. 그는 기독교인의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서 야기되는 것임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Christian life-style)을 변화하며, 마침내 선한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경건(piety, pietas)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언급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감사의 마음을 생기게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은 자기부인, 십자가를 짊, 순례적 삶으로 구성된다(III.7-9).

49: 51. 제49권 51쪽을 말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길을 제시해주셨다. 즉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경건이 그것이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망신스럽게 하는 것이다.” 존 H. 리스, 『갈렙의 삶의 신학』 49 쪽에서 인용.

39) 존 H. 리스, 위의 책, 51 쪽.

40) *Corpus Reformatorum*, 31: 411-412.

41) *Corpus Reformatorum*, 27: 327.

첫 번째로 자기부인은 죽임(mortification)과 갱생(vivification)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중심성의 죽임과 동시에 이웃사랑을 위해 다시 사는 것이다.<sup>42)</sup>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기죽음을 통해 우리는 자기애와 교만을 극복하게 된다. 그것은 겸손과 타자에 대한 존경으로, 또한 공동선과 타자를 위한 사랑의 윤리로 이어진다(III.7.5).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받는 고난의 훈련을 의미한다. 그것엔 훈련, 징계, 핍박의 세 요소가 있다. 훈련으로서의 십자가는 자량의 마음을 제거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극히 약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다(III.8.2).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 및 순종과 인내를 가르친다. 세 번째로 내세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개혁에 눈뜨게 한다. 사람이 참으로 선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있지 않으면 안 됨을 갈렙은 강조한다. 도덕적 삶의 불가결한 조건(sine qua non)인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이기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은 문제가 있다. 성도의 어떤 행위라도 그 본질적 가치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부끄러움 이외에 어떤 보상도 받을 가치가 없다(III.14.9). 그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간구원 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경건한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기회에 따라, 또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갈렙의 자유론은 칭의론에 속한다. 그는 칭의를 통해 자유를 획득한다고 말한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으로서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자유의 실체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함과 충돌하지 않는다. 적어도 율법은 복음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그들의 삶에서 성화를 향한 윤리적 실천을 추구하며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된다. 여기서 율법은 강요가 아니며, 의롭게 된 인간을 위한 은혜의 다른 차원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간

42) 존 H. 리스, 앞의 책, 85 쪽.

43) 존 H. 리스, 113 쪽.

다.44) 그는 율법의 문제를 성령론적으로 해석한다.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내면적으로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율법을 내면적으로 복종하게 될 때, 성령은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시한다. 성령의 역사를 벗어나서 성경은 죽은 문자가 된다. 복음이 율법에 앞선다. 모든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가치가 없으며, 어떠한 확실한 희망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III.2.32). 율법은 거듭난 자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도록 인도한다. 갈방은 무규범주의에 반대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사랑하고 흠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II.7.7.). 갈방은 율법주의와 무규범주의의 양극단을 다 경계한다.45) 루터는 율법을 복음과 대치(dialectic)되는 것으로 보고, 율법에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갈방도 우리가 율법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갈방은 루터와는 달리 율법과 복음을 연속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분이시다. 이런 각도에서 그는 루터와는 다르게 율법의 적극적인 효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요약하여 갈방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기독교인의 선행(good works)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칭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 용서의 체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 갈방 신학의 역동성과 연관된다. 우리는 이러한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아들 됨의 자격을 얻는다. 이러한 신자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스스로없는 순종과 같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가능하게 된다. 갈방은 먼저 행복 된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기죽음을 통해, 그의 삶의 스타일이 변형되어, 새로운 도덕적 행위자로서 태어나게 됨을 언급하였다. 그는 율법의 문제를 성령론적으로 해석한다. 성령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시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선(good)과 덕(virtue)과 법(law)으로 구성된 윤리의 전 체계가, 성령의 역사에 따른 영성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재정위 됨을 파악할 수 있

44) 정승훈, 앞의 책, 149-150 쪽.

45) 존 H. 리스, 앞의 책, 53 쪽 이하.

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는, 바른 윤리생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 V.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조망된 개인적 성화와 세상의 성화

### A.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

석동욱은 그의 논문에서, 성화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먼저 성화론의 출발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앎과 경건이 성화에 필수적이다(I.2.2). 다음으로 성화의 은혜로서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화의 전제가 된다(『기독교강요』 제 2권). 다음으로 성령을 통한 실천적 성화가 『기독교강요』 제 3권에서 서술된다. 제 4권에선 교회와 성화, 곧 공동체적 생활, 교회의 권징, 성례전과 설교 등이 성화의 조건 등이 표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갈방은 국가통치와 성화의 문제를 다룬다. 개인과 교회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성화 및 성화를 돕는 체계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46) 갈방은 은혜의 내적(interior) 사역과 외적(external) 사역에 대해 말한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 3권에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내적 사역을, 『기독교강요』 제 4권에선 외적 사역을 언급한다. 내적 사역이란 믿음을 통해 개인의 내적인 마음의 부패를 제거하는 사역이며, 외적 사역이란 교회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다.47)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성화하실 뿐 아니라, 세상과 문화를 성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문화의 보존자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문화적 삶이 죄로 인한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변혁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스런 자극(arcano Dei instinctu)을 통해

46) 석동욱, “기독교강요에서 본 갈방의 성화론과 신학구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47) 윤영래, “갈방의 성화론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그리스도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하나님은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 갈뎡은 기독교인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지배되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공동체와도 분리되어질 수 없음을 언급한다. 동시 이 같은 교회공동체에서의 삶은 인간 공동체 속에서의 삶과 나뉘어 질 수 없다. 교회와 사회는 모두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로서 인간의 거룩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sup>48)</sup>

갈뎡은 기독교인이 양육되는 장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양육시키시는 장이다(IV.1.5). 둘째,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IV.1.5). 우리는 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필요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갈뎡은 사람이 혼자서 경건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개인의주의를 철저히 거부하였다. 셋째, 교회는 경건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삶의 훈련과 통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에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특히 교회의 치리는 기독교적인 삶에 외적인 보조수단(external aid)(IV.1.1)이 된다.<sup>49)</sup> 인간의 윤리적인 삶은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양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갈뎡은 성화의 방편이 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및 성례전 그리고 극기 등의 훈련을 언급한다.<sup>50)</sup> 이러한 성화의 방편들은 모두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서, 성령을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성령은 교회를 성화의 장으로 만드신다.<sup>51)</sup>

갈뎡은 그의 교회론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 협소한 개인주의적 영성의 한계를 극복한다. 교회는 성령의 교통 하에서의 그리스도와 신자의 사랑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는 기독교론과 성령론에 근거한 내향적

48) 존 H. 리스, 앞의 책, 178 쪽.

49) 존 H. 리스, 194-196 쪽.

50) 장영태, "성서적 성화론과 그 실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대학원, 1985), 52-56.

51) 요셉 리차드, 『갈뎡의 영성』 한국갈뎡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55 쪽.

인 교회론을 강조하였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가 교회라는 것이다(IV.1.52)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구원론과 교회론을 하나로 묶는 끈으로서, 개인의 구원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형제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II.8.51). 그러므로 형제를 상하게 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IV.17.38).

그리스도의 인성<sup>52)</sup>과의 연합을 통해 성화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화된다. 사회적 성화는 성만찬의 이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성만찬시 빵과 포도주를 위시한 자연만물과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게 되는바, 이를 통해 신자의 사회변혁적 선교에의 부르심이 야기되는 것이다. 갈뎡은 그의 교회론에서 성만찬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IV.17.38). 그는 성례전을 사회윤리적인 측면으로 해석한다. 그리스도의 성례전적 희생을 근거로 인간의 사회적 삶은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으며, 성만찬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회중 간의 영적 친교는 장차 회복 되어야 할 사회의 정의로움과 평화 및 해방의 영성을 지향한다.

개인의 삶의 환경이 거룩하지 못할 때, 그 개인은 바로 성화되기 어렵다. 구약성경은 인간의 성화뿐 아니라, 환경과 자연물의 다양한 성화를 언급한다. 안식일, 절기들을 구별하는 시간의 성화(창 2:3), 장소의 성화(출 15:13), 각종 기물들을 성별하는 사물의 성화(출 15:13), 제사장 등의 특정한 사람의 성화(출 29:1-36, 40:12-15; 레 21:1-22:33) 등이다. 또한 신약성경은, 교회의 거룩하게 됨(벧전 3:11-12; 엡 5:25-27; 고후 11:2; 계 21:9)과 세상의 성화에 및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고전 1:2,

52) 우리가 교회의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하나 됨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실제화 되지 않는다(IV.1.2). 교회는 단순히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사역이 교회로부터 형성되는 것임을 갈뎡은 강조하였던 것이다.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다.

53)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갈뎡은 말한다.

30, 6:11)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sup>54)</sup>

### B. 갈뱅과 사회적 성화의 실천

중세는 성직에 관하여만 “소명”(Beruf, vocatio)이라는 말을 적용하였으나, 루터는 만인제사장직론에 입각하여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다. 큰 패러다임 이동이다. “소명”에 관하여도 갈뱅은 루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갈뱅은 국가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성화)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세속적인 삶(secular life)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sacred life)을 강조하였다. 갈뱅의 직업윤리에서의 “예절론” 및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후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베버(Max Weber)가 언급할 정도로, 갈뱅의 사상은 루터의 사상보다 사회윤리적인 영향력이 더 컸다 하겠다.

갈뱅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루터의 두 왕국론(zwei Reichenlehre)의 구도를 물려받고 있다. 하지만 갈뱅은 루터와 강조점을 달리한다. 루터는 복음과 성령이 지배하는 이신칭의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으나 사단과 죽음과 죄의 권세 하에 있는 불신자들의 세계를 이분화 시킨 나머지, 후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경향이지만, 갈뱅은 후자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의 후자에 대한 책임과 성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가진다. 예컨대 갈뱅의 종교개혁의 현장인 제네바의 경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제네바 도시국가 전체가 크게 성화되었다.

갈뱅은 사회적 성화를 폭넓게 실천하였다. 그는 제네바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신정정치(神正政治)의 장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저속한 노래와 카드놀이 코리대금업 등을 금지시키고, 76명을 귀향 보냈으며, 간음죄라는 이유로 58명을 처형기도 하였다. 갈뱅은 근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로크(J. Locke, 1632-1704)의 사상과, 1688년 청교도들이 중심하여 일으킨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독

54) 장영태, “성서적 성화론과 그 실제”(미간행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대학원, 1985), 12-21 쪽.

립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에 순차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베버는 그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갈뱅의 사상이 자본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divine ordinance)의 산물로 보았다. 정치적 질서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장치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로 생각하였다. 국가와 교회 모두를 그리스도의 주권(the sovereignty of Christ) 하에 두었다. 그의 이 같은 생각은 루터의 두 왕국 이론과 대비된다. 그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이 강조하였다. 이에 신실한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비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악마와 육욕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과 국가와 교회라는 삼대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다.

갈뱅은 거룩함과 도덕을 사회질서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서의 영성은 개인뿐 아니라 세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질서의 새로운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영성이 사적 종교와 공적 종교,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내면성과 외면성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sup>55)</sup> 갈뱅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은<sup>56)</sup> 종말론과 결합된다. 신앙의 순례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대로의 상태(status quo)를 승인하지 않는바, 현실을 개혁하는 자들이 된다. 성령을 통해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으로,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치와 사회적인 변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다.<sup>57)</sup>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인의 윤리적인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온 세상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을 유발한다는 것이 갈뱅의 주요한 논점인 것이다.

55) 요셉 리차드, 앞의 책, 231-239 쪽.

56) 갈뱅은 그의 책에서 ‘신비적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하곤 하였다.

57) 정승훈, 앞의 책, 71 쪽.